

홍준표, 통합 무산...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 필요”

20년 후... 절반 이상 소멸 우려 통합 논의 장기과제 돌리고 “대구혁신 집중이 수습 방안” “협업·조정 통해 난관 극복을”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자신이 논의 무산을 선언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2일 시 공무원을 상대로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국 간부들과 전 직원들은 통합의 진정한 본

질을 숙지하여 대내외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권영진(대구)시장과 이철우(경북)지사가 논의했던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안이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도 행정체계를 대구 경북특별시로 집행기관화해 강력한 균

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막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시한인 8월 말을 넘겨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절반 이상이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통합 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사실상 무산을 대내외에 알렸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은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여지를 남겼지만 홍 시장은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의 도움으로 건립 재원을 상당수 확보했으니 신청사 건립

TF를 구성·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제 세수결손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대규모 국제 결손에 따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마른 수건을 짜내는 단계를 넘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하반기 재정 충격에 대응하고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구시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성 공룡이 돌아오는 오명관광여행사

단체장 일정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달 28일 청송군 관내 사과 과원을 방문해 고사목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3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난항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이 10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달성군은 옛 대구교도소 자리의 외부 공간을 시민쉼터로 조성한다.

하지만 처리 비용만 8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소 내 쓰레기 처리에 대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떠넘기고 있다.

교도소 터가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자 법무부는 “쓰레기와 빈 건물을 기재부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법무부에서 처리하고 넘기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잘 해결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옛 대구교도소 터 10만5560㎡(3만1932평) 중 교정시설은 4만4520㎡(1만3467평), 녹지공간은 2만7200㎡(8228평), 업무시설은 2만840㎡(6304평), 주차장은 1만3000㎡(3933평)다.

대구시는 교도소 후적지를 문화시설로 조성하려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무지컬콤플렉스를 대구시청 산격청사(옛 경북도청)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조여은 기자

“논서술형 대입’ 이제 거국적으로 논의해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회장 논·서술형 평가 제도 도입 제안

강은희(사진)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 대입 개편과 관련, “5지선다형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논·서술형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협회장은 대입 개편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세종 한 식당에서 가진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소신을 묻자 “지식을 바탕으로 나(학생)의 생각·제안은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는 대입 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5지선다형으로만 대입을 더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 논·서술형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다만 강 회장은 “단순하게 물어서 확인해야 할 지식은 있다”며 5지선다형 방식과 새로운 논·서술형 평가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렇게(대입 제도 바뀌어) 가야 학교 수업도 바뀔 수 있다”며 “답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 고민 하지만 거의 동시에 해야 한다. (새 대입 개편안) 미리미리 바뀌어 교육 방식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논·서술형 제도 도입 논의) 출발이었다면 이제 거국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다”고 추진을 촉구했다.

교육감협회장은 국교위 당연직 위원이다.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인데,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담게 된다.

강 회장은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대입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전조 성격으로 “논·서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IB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이다. 수업은 토론 형으로, 평가는 논·서술형과 절대평가 형태로 운영한다. 대구는 2019년 제주와 함께 IB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IB를 운영하면서 축적됐던 평가 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에 확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도교육청 재정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교육교부금)을 두고 ‘학생 수가 줄어서 남아 돈’다는 공세에 대응할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도했다. 강 회장은 “교육부와도 가벼운 차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오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를 앞두고 다급 교육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강 회장은 후보들의 부담이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낮다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그는 정당이 속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와 후보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는 “각각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지금과 같은 직선제도 괜찮지 않겠나”라면서 “지방선거 때) 교육감을 안 찍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 5월말 총회에서 제10대 교육감협회장으로 선출돼 2년 간의 임기를 수행 중이다. 강 회장은 교육감협회 회장 취임을 계기로 간담회를 가졌다. 황태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90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2

북구 침산3동 자율방범대 합동 대청소

대구 북구 침산3동 자율방범대는 관내 도로변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일) 합동 대청소(잡풀 제거)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청소는 침산3동 관내의 환경 취약구

간을 정비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침산 초등학교 인근과 침산로 회전교차로 구간, 백사 벌네거리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잡풀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경환 자율방범대장은 "우리 동네 어린이들의 통학로 주변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침산3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국제식품산업전 폐막... 상담실적 전년 比 185%↑

전년 比 2배 증가한 바이어 참가 4497만불 수출 상담실적 거둬 19개사 유통MD 초청 B2B 상담 시 "수도권 버금가는 전시회 목표"

지난달 28일 31일까지 4일간 엑스코 동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제24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K-FOOD EXPO 2024)이 눈에 띄는 수출 계약성과를 거두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올해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대구광역시의 수출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기조에 맞춘 전시

회 준비로 역대 가장 많은 230개사 442부스 규모로 개최돼 다양한 식품관련 제품의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으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전시회라는 평가 속에 성황리에 폐막했다.

대구시는 대구 식품산업전을 통한 식품업체들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9개국 52개사 60명의 해외바이어 초청과 국내 19개사 유통MD를 초청해 내실있는 B2B 상담회를 진행했다.

워크인(walk-in) 방식의 상담회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박람회와 달리 대구 식품전은 별도의 상담장을 조성하고 바이어와 기업이 원하는 내

용을 사전에 파악해 적합한 기업과 바이어를 서로 연결해 준 덕분에 참가 기업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8월 28일(수)과 29일(목)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수출 상담액은 전년 대비 185.8% 늘어난 4,497만 불로 집계돼 향후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참고로 식품전 기간 국내외 바이어 총 상담액은 전년 대비 69.5% 늘어난 1,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점 분식으로 유명한 ㈜씨지에프는 "KINTEX, COEX 등의 수도권 유명 전시회를 다녀왔지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의 바이어가 가장 퀄리티가 우수하고 상담회 운영도 가장 깔끔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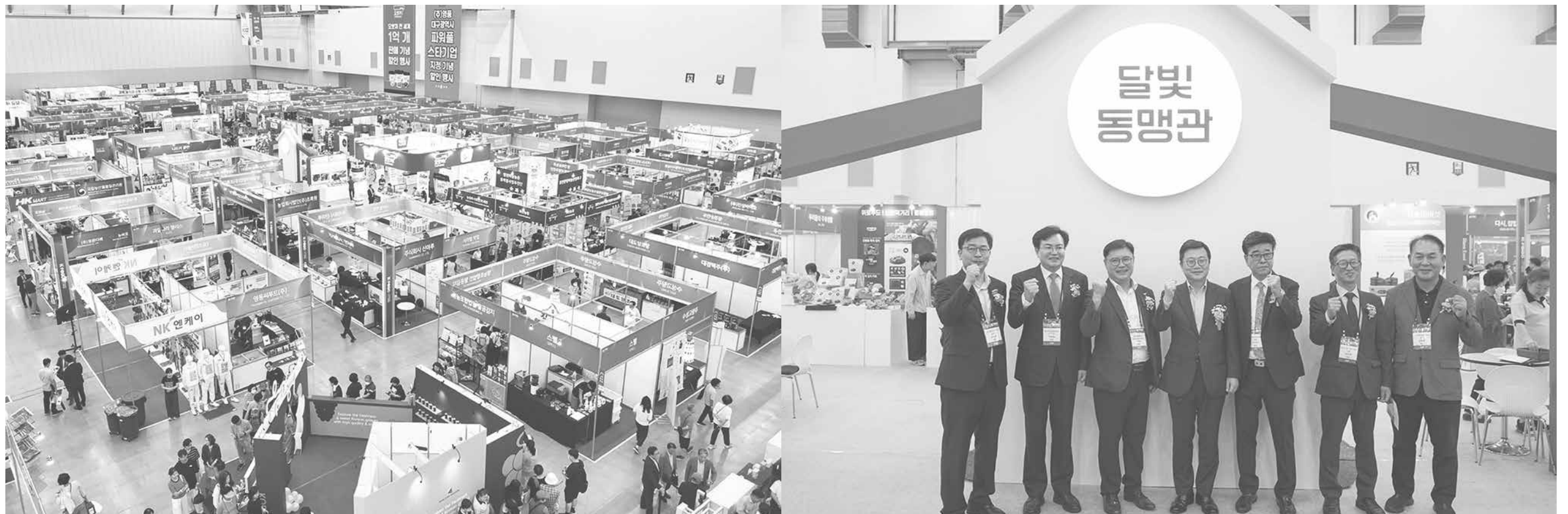
올해 대구 식품전에 처음 참가한 김치 수출기업인 ㈜감미 역시 "대구 식품전 바이어와 미팅이 너무 만족스러웠다"며, "앞으로도 대구 식품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레도르트 멸균 전문 기업인 ㈜경한은 전시회 현장에서 1억 8천만 원 상당의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열성형 포장기계 전문 기업인 ㈜코마스는 3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대한 참가 기업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전시회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이 식품 전문 전시회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식품 전시회를 수도권과 버금가는 전시회로 만드는 것이 대구시의 목표이고, 대구에서 많은 식품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K-FOOD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K-FOOD가 알려지는 방법은 수출이며, 지역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구, 2024년 대구문화유산 야행 성료

가족 단위 관람객 각종 체험 제공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거리 인기

대구 중구는 지난달 30-31일 양일간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구 문화유산 야행' 행사가 전국에서 모인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 대구 문화유산 야행은 경상감영공원 일원의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꾸며진 대구 유일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지난 12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투어 프로그램은 현장접수를 병행해 지난해보다 많은 인원이 투어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감영에 부인한 관찰사 박물관의 꿈을 주제로 한 여름밤 관찰사와 함께하는 색(色) 다른 시간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경상감영공원 일원을 아름다운 경관조명과 함께 다양한 공연·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된 선화당에서는 조선시대 경상감영에서 펼쳐진 풍속을 재연하는 공연과 무형유산 수건춤 공연, 대북공연, 퓨전국

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늦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하기 위해 경상감영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늦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대구시 지정 국가유산인 정청각에는 무형유산 단청장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형형색색 비추고, 정청각 뒤 잔디마당에서는 마당극, 해설사가 들려주는 경상감영이야기 등이 야식 코너와 함께 펼쳐지며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또 역대 경상도 관찰사와 판관의 선정을 기념해 제작된 29개 선정비에 담긴 이야기를 각각 QR코드를 찍어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감영도슨트 프로그램과 무형유산인 단청 그리기 체험, 전통복식 체험, 달등투어, 청사초롱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경상감영공원 곳곳을 채우며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행사장 메인입구 아치, 자유스텝 미션 투어인 경상원정대, 한여름밤의 꿈을 형상화한 고래와 물고기 등 조명, 캐리커처, 인형세트,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거리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붐비며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성구, 대구 최초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재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규 직원 4명 재난안전상황실 배치

대구 수성구는 재난상황 관제, 상황전파 등 재난관리를 위한 필수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재난 사고를 참고한 수성구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시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0여 곳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재난 당직 근무를 맡을 경우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고, 이에 수성구는 재난 업무 경험을 갖춘 직원을 포함한 정규 직원 4명을 재난안전상황실에 배치했다.

4명의 근무자는 재난 시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근무자를 현장으로 출동시킨 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확대 가능성 등을 보고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상황 전파, 내부 및 상위기관 초동상황 보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선다.

특히, 음성통화 위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영상화면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실시간 연계 송출하는 '미러링(mirroring) 시스템'을 도입, 현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성구는 재난안전상황실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폐쇄회로(COTV) 영상정보, 인파관리시스템 등이 표출되도록 멀티비전형 영상장치를 설치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연계, 재난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황실 책임성 강화, 상황실장 및 근무자 임무, 긴급상황 시 다각도 대체적 수단 보고와 상황보고서 작성 등 내용을 담은 수성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도 지난달 제정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양상을 보면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과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 명절 이웃돌보기 캠페인

회원 120여명 '바르게의 날'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동구협의회는 2일, 큰고개거리에서 회원 120여 명과 바르게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추석명절 온기나눔 실천'을 주제로 추석 연휴 동안 주변 이웃을 살피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김태중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명절이면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이 많다"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달성군립도서관, 평생교육·독서문화 중심지로 발전을"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회 계명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달성군립도서관은 지난 29일 '달성군립도서관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립 8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달성군수와 군의장 및 부의장, 군의원, 자문위원,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연구원 오동근 교수(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가 '달성군립도서관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위원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달성군립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핵심가치와 정책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비전은 '달성의 미래를 빛내는 행복한 도서관'으로 정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6개월간 문헌조사와 달성군내 도서관 진단·분석 및 이용자·서비스·의견 설문조사, 직원면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달성군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달성군민들의 평생교육의 중심지 및 지역 독서문화교육 복합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 강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바라고, 달성군 관내의 도서관들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달성군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의 독서문화교육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 해외 한인여성지도자들과 글로벌 협력 강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대회에 참석한 해외 지도자들이 2일 경북도를 방문, 지역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방문단은 인천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KOWIN)(2024년8월29-31일 여성가족부 주관)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해외 지도자로 미국, 브라질 등의 정부·비정부 기관 리더들로 구성되었다.

방문단은 먼저 이 지사를 만나 경북 현안과 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경북의 주요 문화유산 탐방과 함께 해외 거주 여성 지도자로서 해외에서의 경북 위상 강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든다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회적고립 예방 앞장

경북도는 2일 HS화성, 화성장학문화재단, 경북행복재단과 도청에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이종원 HS화성 회장, 정필재 화성장학문화재단 상무이사,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와 3개 기관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전문 건축인력을 활용한 민간 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대상자 사례 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지원 등의 활동을 서로 협력해 수행한다.

HS화성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집수리인력과 건축자재 지원을 하는 등 고립 위험에 놓인 도민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HS화성은 경북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어촌 발전뿐 아니라 북

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행복재단은 올해 4월부터 광역 단위의 고독사 예방 관리 전문 기관 '경상북도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를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아 도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 대상 주거와 생활환경 지원사업이 경북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종원 HS화성 대표이사는 "경상북도와 함께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고독한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겠다"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간 협력해 경북도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구 지원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 공모 선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 종합계획 수립, 6천여 명의 민간 안전망 행복공동체 구성 등 고독사 제로를 목표로 복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대구 학생들, 전국기능대회 큰일 해냈다

금 5개, 은 8개, 동 7개 수상 경북공고 2년 연속 금탑세워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4~30일까지 구미시 등 경북도 일대에서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회에는 38개 직종에 학생 선수단 94개 팀이 출전하여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고, 6개 팀이 우수상, 19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총 45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기계공고 CNC/선반과 기계설계/CAD △대구하이텍고는 CNC/밀링 △대구과학고 고 주조 △대구전자공고 산업용로봇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 기능 우수학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대구공고 목공예 △대구일마이스터고는 금형 △경북공고 건축설계/CAD △조일고 산업용

드론제어 △경북기계공고는 전기제어, 폴리메카닉스, 냉동기술, 금형에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상서고 제빵과 요리 △대구일마이스터고 CNC/선반 △경북기계공고 프로토타입모델링, 금형, 기계설계/CAD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영예를 누렸다.

경북기계공고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탑을 수상하며 최우수 선수 육성기관으로 위상을 다졌다.

폐막식에서 CNC/밀링 직종의 금메달 수상자인 대구하이텍고 노성준 군이 국무총리표창과 삼성전자 후원상을, 기계설계/CAD 직종의 금메달 수상자인 경북기계공고 박주현 군이 삼성전자 후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순위에 따라 상장과 상금이 지급된다.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8회 국



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향후 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실기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해마다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올리는 학생 선수 및 기능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올해는 2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내년에 더 성장할 학생들의 모습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기술 인재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당부

농업 종사 농업인 지원 제도 직불금 수령 17가지 준수사항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9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구·경북지역 250천여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집합교육으로 아래 4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로 상시 수강도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경북교육청은 오는 4일 도내 143개 학교와 5개 학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한다.

모의평가에는 도내 재학생 1만6471명, 졸업생 및 검정고시 1222명 등 총 1만7693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대비 279명이 증가한 수치로, 재학생은 103명이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는 382명이 늘었다.

평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

두고 치르는 마지막 평가원 모의평가로,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수능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험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진행,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김성용 기자

Advertisement for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and a steering wheel, with the text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No!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vacate the driver's seat.) and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한한 슬로건입니다.' (This slogan is limited by all citizens.)

황오락 뮤직페스타 7~8일까지 개최

경주시가 오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간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황오락(樂) 뮤직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역예술

인들과 주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 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첫날인 7일에는 사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역 뮤지션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 내 학생들의 창작 동화책을 낭독극 형태로 공연하는 '우리동화, 우리연극'이 진행된다. 둘

째 날인 8일에는 지역내 활동하는 10팀의 전문뮤지션의 신나는 공연이 개최된다. 무대 공연 외에도 스에어바운스, 체험 프로그램 버스 스티지크리에이터들의 플라마켓 스프리트, 휴게공간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화유산 신기술·정보 공유...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연다

112개 업체·기관 총 308개 부스 미래포럼·잡페어·컨퍼런스 등 관람객 대상 다양한 체험 제공

경주에서 국가유산 산업의 최첨단 트렌드를 공유하는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이 오는 10~12일까지 열린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산업전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재)

경주화백컨벤션뷰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산업전은 기관 중심에서 보존관, 신기술관, 제품관, 활용관, 홍보관의 국가유산산업 중심 확대 개편했으며, 지난해 보다 17% 늘어난 총 112개 업체·기관이 308개 부스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컨퍼런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국가유산 기술 상담회, 국내 바이어 상담회,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잡페어 등이 진행된다.

여기에 참가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참가업체와 바이어가 함께하는 네트워킹 디

너인 '경주 나이트 디너와 밤하늘을 수놓은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드론 라이트 쇼는 눈여겨 볼 만하다.

전시관 1층에서는 단청장, 소목장 등의 무형유산 전통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가 사전 신청 및 현장 접수로 펼쳐진다.

3층 로비에서는 애프터눈 콘서트가 준비돼 신나는 퓨전 국악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학예연구사와 함께 지역 비공개 급격히 고분군 국가유산 발굴 현장과 동공과 월지를 둘러보고 체험하는 국가유산 필드투어는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이번 산업전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헤리

티지 미래포럼'은 11일 14시 3층 메인 무대에서 AI(인공지능)와 함께하는 국가유산을 집중 조명한다.

강연은 먼저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그라치아노 라노키아(Graziano Ranocchia) 파피루스학 교수가 서기 79년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 묻혀 있던 아치형 변형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에 담긴 고대 플라톤의 무덤 위치와 관련한 미스터리를 AI로 밝혀낸다.

이어 꿈의 발전소라 불리는 미국 MIT 미디어 랩 패타라누타포른(Pat Pataranutaporn) 연구원이 '사이보그 문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재해석, 혁신, 그리고 진화'에 대해 안내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경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상시 운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산업전은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하는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가유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시립도서관 홈페이지·SNS 참고

경주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5g, 가법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운영한다.

시립도서관 본관과 송화·중앙·칠평·감포·단석도서관에서는 이달 중 일주일간 '연체자 해방', '마지막 수요일에는 '두베로 데이' 행사를 운영하며, 송화·감포·단석도서관에서는 '잡지 무료 배부'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시립도서관은 9월 한 달 동안 그림책 '오늘도 웃으며' 원화와 '월링의 숲' 책속에서 피어나는 주제의 북큐레이션, 대출·반납 확인증을 응모하는 행운의 영수증을 진행한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요일네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작은 손, 그림책 꽃방'을 운영한다.

7일에는 감포 나정고운모래해변으로 이동도서관이 찾아가 북크니 공간을 조성, 바다도서관 전시 및 체험행사를 여는 '바다로 떠나는 바퀴 달린 도서관'을 선보인다.

사료용 옥수수 재배 확대... 年 60억원 절감 추진

품종별 평가·기계화 수확 시연회 지역 최적화 품종 '광평옥' 결정

경주시가 2일 내남면 소재 신농업혁신타운에서 사료용 옥수수 품종별 평가 및 기계화 수확 연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농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옥수수 품종별 평가, 기계화 연시, 전시 포장 및 전시 관람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연은 최적화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발굴해 농가에서 옥수수 품종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종자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 특성상 동계작물 후속으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어 생육기 가뭄에 강한 품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또 외국인 품종과 비교했을 때 가격 또한 포당(20kg) 23만7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내건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착수고, 출사기, 해충 저항성 등의 시험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료용 옥수수 5종류의 품종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주지역 최적화 사료용 옥수수 품종으로는 '광평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경주시는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이 950ha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넓어 연간 60억원

의 배합사료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름철 대표적인 사료작물 역할로 농가 사료비 절감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 신농업혁신타운 내에는 경주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사료용 옥수수 선정을 위해 사료용 옥수수 5품종에 대한 품종별 비교 전시 포장을 올 6월에 조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값 하락 및 사료비 증가로 전국의 대부분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현장 연시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료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릭터 '침성이' 공식 관광 앱 홍보맨 발탁



앱 '경주로운(ON)' 홍보부장 위촉 LCK 결승전 등 침성이 활용 예정

침성대를 담은 인기 캐릭터 '침성이'가 경주시 공식 관광 앱의 홍보맨으로 발탁됐다.

경주시는 지역 관광기념품 제작업체 아모르데이가 개발한 캐릭터 '침성이'를 별도의 로열티 없이 경주시 공식 관광 앱 '경주로운(ON)'의 홍보부장으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침성이'는 아모르데이 손예진 대표가 2017년에 국보 31호 침성대를 모티브로 20~30대 관광객을 겨냥해 개발한 캐릭터다.

2020년 경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에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홍보부장 위촉으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4 LCK 서머 결승전'에서 침성이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홍보부스와 팝업스토어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침성이를 통한 챗봇과 SNS 채널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침성이가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인 만큼, 다양한 연령층에게 호감을 주고 MZ세대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앞으로 침성이를 경주시 상징 캐릭터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침성이를 통한 관광홍보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고위직 간부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지난달 전 직원 관련교육 진행

경주시가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8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청내 일천홀에서 진행됐으며,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젠더리스 언어'를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하지원 전문강사가 맡아, 직장 내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낙영 시장은 "직장 내 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며 "성인간 감수성을 높여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4대 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



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도동지역사회보장팀, 정기 회의 개최

선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2024년도 제3차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인 및 연인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사업 성과와 예산 현황을 보고하며, 202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이웃사랑복지단은 선도동 맞춤형복지팀

과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위원들은 대상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도닥도닥 11 가족맺기'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지속

적인 기부와 나눔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 은둔형 외톨이 등 약 30세대의 이웃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앞장서고 있다.

손지연 민간위원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밤낮으로 안부를 살피고 애쓰는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하반기에도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천 봉산면 새마을협, 도로 환경 정비

김천시 봉산면 새마을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귀성객 및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도변 풀베기 및 한경정비를 했다.

새마을회원 20여 명은 지난 30일 이른 새벽부터 봉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모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진행했으며, 봉산면 신리에서 광천리까지 이르는 약 12km 구간의 연도변

잡초, 넝쿨 등을 제거했다.

이병영 새마을협의회장은 "추석 앞두고 농사일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깨끗한 봉산면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도·농 상생모범 자리 잡아

서울서 H.O.T Festival 성료 80여개 부스 시민들과 만나 농·특산품 판매 30억 매출 '6시 내고향' 영양군 생방송

경북 영양군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행사가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8월 29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기간 동안 15만여 명의 관람객과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농·특산품 판매 30억여 원의 매출과 10억여 원의 예약주문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TV광고, 신문보도,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 등으로 300억 원 이상의 홍보 및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했다.

200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올해 16회로, '가장 작은 육지섬에서 대한민국 최대중심도시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이다. 올해도 영양고추의 K매운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불필요한 행사를 최소화하고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집중하였으며,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치렀다.

3년째 추진하는 개회 나눔행사는 상생의 의미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연계해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진정한 도농상생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첫날인 29일 'KBS 6시 내고향'영양군 특집 생방송은 생생한 현장감을 높이고 소비자 접

객의 건의역할을 하였으며, 시민참여행사로 '도전! K-매운맛! 영양고추 챌린지'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농특산물 사은품을 제공하고 '영수증 이벤트'와 함께 16년동안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부스에서는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선보였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한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을 가공업체 그리고 사과, 장류, 막걸리, 나물류 등 80여개의 부스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견고추와 고춧가루에 대해 정찰제 및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의성군신안군과 함께 지자체협력을 통해 양념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배달도우미택배부스를 운영해 고객 편의를 제공, 무더위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커피와 음급부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눈높

이를 맞췄다.

전시·홍보 부스에서는 영양생태홍보관에서 밤하늘과 반딧불이 체험을, 음식디미방 홍보관에서는 최초의 한글로 된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선보였으며, 올해 처음 기획한 멸종위기종복원홍보관과 영양군 로컬푸드홍보관에서는 각각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공모전과 홍보, 순수한 영양군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났다. 서울 시민들의 힐링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영양고추 테마동산에서는 지역특색을 한껏 살린 미리보는 가을농촌과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전래마당극인 원놈을 공연으로 고유의 무형문화를 도시민에게 알렸으며,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동참해 행사의 품격을 드높였다.

농특산물 홍보대사인 영양고추홍보사절 50여명은 현장을 누비며 농가와 함께 판매활동에

앞장했으며, 시민들을 위한 화려한 퍼포먼스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는 견고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양군 현지에서 사전 품질관리를, 행사기간 중에도 판매지도를 철저히 수행해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적극 협력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K-매운맛! 영양고추를 기다려주시고 방문해주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생산농가와 도시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도·농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았으며, 배풀어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최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준비해 서울광장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경북 영양군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행사가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8월 29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영천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추가 논의와 계획 전반 점검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계획



영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진현 영천시 부시장, 우애자 영천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문화도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축적된 시민참여 역량을 비롯한 영천시의 문화자원 반영, 지역별 문화거점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사업 등의 핵심과제와 관련한 세부추진사업, 문화추진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계획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시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마련을 위한 분 용역에 착수해, 시민 및 문화예술단체 설문조사, 라운드테이블 및 전문가 위그그룹 운영을 통해 단계별 의견 수렴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사업도 포함함으로써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최은하 기자

울릉-NH농협은행 울릉, 중기 금융지원 협약

특례보증 총 30억원 규모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울릉군은 지난 달 30일 울릉군청에서 NH농협은행 울릉군 지부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재정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총 3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지방 이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0.5% 이상 낮출 수 있다. 울릉군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차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줄 계획이다.

남규수는 "기업지원 특례보증이 지역기업의 경영상황 개선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청도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회의

시설물 개선 추가설치 등 논의

청도경찰서는 최근 청도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일 청도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 및 파출소장 등이 참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해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 후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도지역 특성에 따른 고령차, 이륜차, 농기계 등의 사고 발생이 높은 만큼 사고 취약지역과 시간대에 교통·지역경찰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영덕 강구면지사협, 취약 가구 환경 지원

50가구 대상 세탁조 청소

영덕군 강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한달 동안 세탁조 청소지원사업을 시

행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협의체 신규사업으로, 협의체 위원과 재능기부 참여자들은 세탁조 청소용액을 각 가정에 제공하고 청소액 사용 방법을 부착해 언제든지 세탁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은어 산란기 불법포획 단속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청송소방서, 진보전통시장서 화재 예방 캠페인

청송경찰서와 합동 진행

청송소방서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 제수용품 구매하기 위해 북적이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28일, 진보전통시장에서 청송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 및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화재의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의



식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활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문정환 소방서장은 자율안전점검을 강

조하며 대형화재 방지와 주민들의 화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보의용소방대 및 청송군청이 참여해 진행하였다.

이날 화재예방 홍보 활동을 비롯해 화재안전관리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화재안전조사도 진행되었다.

문정환 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의 협소하고 복잡한 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빠른 확산이 이루어져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병모 기자

단속에 들어간다.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했다.

또한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의성, 시군역량강화사업 성과 발표회

의성군은 지난달 29일 비안면센터 야외공간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열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

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성 및 역량을 성장시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S/W사업이다.

이날 전시 및 발표회는 비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면민노래자랑과 함께 개최하여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색소폰, 쉼바댄스 공연 등을 시작으로 행복농촌만들기 콘서트 퍼포먼스, 면민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재성 기자



“문경,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추진... 행정력 집중”

10대 분야 60개 공약사업 점검 신성장 동력 TF 전략 과제 보고회 경찰학교 유치 관련 신청서 제출

문경시는 지난달 30일 신현국 문경시장과 공약이행평가단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0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공유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은 각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약사업은 차질 없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완료된 사업은 △화물차 주차장 건립, △택시 광고료 100% 인상 △시내 아파트 단지 주차장 증설 △시내 제2원형실 설치 △하늘재 옛길문

화 관광자원화 사업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장 집무실 1층 이전 △국민보도연맹 회생자 위령탑 건립 △물장구·물놀이장 설치 △가족센터 건립 등 총 12건이다.

또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시정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TF 전략 과제를 보고하여 문경 미래

비전의 방향을 설명했다.

우리 시 최대 핵심과제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지난 7월 31일 최지자를 선정하여 경찰청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기원 서명운동 전개에 이어 8월 23일 '경찰도시 문경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경찰을 지켜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훈대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소방장비기술원 유치, 다분 의식산업

개발원 유치 등으로 문경이 변화하는 모습이 체감되고 있다."라며, "이 기세를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1%의 가능성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함께 시정 발전의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 시민교육 주말·야간반 수강생 모집

바리스타자격증·남성생활요리 등 4개 분야 19개 과목 284명 정원



영주시평생학습센터는 3일부터 6일까지 하반기 시민교육 주말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자격증(바리스타 2급, 타일 기능사) △문화예술(가족공예, 캘리그래피 외 8과목) △음식·요리(베이킹(주말, 야간), 남성생활요리) △취미교실(생활목공, 바리스타취미반

외 2과목) 4개 분야 19개 과목으로 수강정원은 284명이다.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해 수채화(야간반) 및 베이킹(주말반) 과목을 신설했다. 마지막 접수일인 6일은 정원미달 과목에 한해 기존 1인 1과목 수강 제한이 아닌 중복 접수도 허용한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영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54-634-600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정 선비인재양성소장은 "시민교육 주간반 신청을 놓치거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주말 및 야간반을 개설했으니,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착공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 확보
폭 12.5cm, 연장 613m 재가설



상주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지난달 8월 착공했다.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37억원(국비 268, 도비 81, 시비 188)을 투입하여 강창교를 폭 12.5m, 연장 613m로 재가설하고 기존 도로와의 접속도로 527m를

정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7년 8월까지 총 3년의 기간에 걸쳐 준공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창교는 중동면을 진출입하는 주동로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개항후 수량보다 낮아 매년 침수될 위험이 있다.

교량침수시 주민들이 15km 이상 우회하여야 하여 여름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교량이다.

금번 강창교 재가설은 통행 안전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여름철 호우시마다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던 강창교를 이번엔 재가설하게 돼 기쁘다"며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예천군 신규·공모 사업 등 138건 제시

시책 보고회 열어 사업 논의
우선순위 따라 내년 예산 편성

예천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학동 군수 주재로 '경북의 중심! 미래를 선도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2025년 군정 시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책보고회에서는 정부와 경북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과 지역현안 해결,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공모사업 138건, 현안사업 96건 등 234건의 사업이 제시된다.

군은 2일 안전재난과와 보건소를 시작으로 6일까지 4일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초광역 발전 협력과제, 탄소중립기후

변화대응-지역균형발전, 관계인구 확대 방안,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사업 등 국·도정 과제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2024년 후반기는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그동안 다져온 기틀 위에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들은 소요 예산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 예산편성에 반영될 계획이다.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4차 설명회

4개 리 마을회관 120여명 참석
품질향상, 경영비 절감효과 제시

의성군은 지난 29일,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대상지인 4개리(△오상리 △오상2리 △토현리 △작승리) 마을회관에서 사업참여 농가 대상으로 4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4개 리 마을회관에 120여 명의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

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용수기반 구축, 무우선 통신타입 구축과 더불어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동관수 시설 구축계획과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참여 농가의 협력을 당부했다.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진행 중인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현장 조사 및 성과분석 1차년도 성과 보고를 통해 노지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시 예상되는 의성 마늘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시하여 참여 농가들의 노지스마트농업 기

술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31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과 용수기반, 통신망 구축 등 기초 기반조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노지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중심의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마무리

25개국 600여명 선수·임원 참가



문경시는 지난 8월 29일 개막한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가 9월 1일까지 4일간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25개국 600여 명 선수, 임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는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로 아시아 유도연맹에 소속된 주요 국가 선수·임원과 경기장을 찾은 전국 각 지역의 유도 팬들로 인해서 문경시의 주요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농·특산물 판매, 대중교통 이용 등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의 특수를 톡톡히 누

렸다.

이번 대회 기간 중 JTBC 골프&스포츠 채널에서 대회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합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유도 팬들과 시청자들의 큰 관심과 만찬을 이끌어냈다.

대회 청소년 대표로 출전한 허미오 선수는 허미오 선수의 동생으로 대회 기간 중 활약과 자매의 우애 넘치는 모습을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촬영하여 대회 현장의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선수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포착해 실감나게 경기 현장을 보여주는 JTBC 중계방송과 공중과 관찰 예능을 통한 시정·대회 홍보 정책은 미디어를 통한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연이은 우수한 국내외대회 유치를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미디어를 통한 시정·대회 홍보정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유치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봉화농협,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봉화농협, 농협 봉화군지부와 재산면과 재산면 새마을회와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봉화군 재산면 동면로 일대에서 농사용 폐비닐과 폐자재 등을 수거하기 위해 40여명이 참가하여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모임은 그동안 농사일에 바빠서 수거하지 못한 사용한 농자재를 깨끗이 정리 하기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 했다.

봉화농협, 농협 봉화군지부, 재산면, 그리고 새마을회에서는 농업으로 인한 주변에 오염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이해 당부와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도 달 라 제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가 습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 www.dgy.co.kr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칼럼

좋은 쏘라고 준 것인가?

임정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졌다. 급기야 시위대가 광화문을 넘어 경무대(청와대)를 향해 나아가자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이 발포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집권 자유당의 이기붕 대표최고위원은 사건 경위를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좋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과잉 조치를 합리화하려다 말 같지도 않은 희대의 실언을 내뱉은 것이다. 그 후 이기붕 일가의 가족적 비극과 함께 정권 붕괴로 이어진 결과는 우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4·19 혁명이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최빈국의 일원에서 단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그때와 비슷한 불의와 무법이 자행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은 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거를 일삼고 있다. 그들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주장

하는 근거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회의 진행과 의견 집약의 최후 해결 방법으로 존중되는 수단을 아예 처음부터 멋대로 휘둘러도 되는 요술 방망이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사회에서 요구되는 회의 진행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 먼저이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구나 조직은 여기에 더해 관행과 전례도 존중하면서 합의와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도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지 부진할 때에야 비로소 다수결 원칙을 사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오랫동안 여야가 갈등하면서도 타협해서 만든 암묵적 합의(타협이나 협상은 기록에 의한 문서로 이뤄지는 방식만은 아니다)는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수의석만 앞세운다. 관행을 무시한 일방적인 원(院) 구성부터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 편파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필설로 이루 다 지적하기 어려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건강상식

젊을수록 고혈압, 당뇨 유병 사실 인지 못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선행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20~40대 성인이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나이가 적을수록 자신이 고혈압, 당뇨병 등 선행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르는 20~40대 성인이 많아 치료, 관리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다. 고혈압의 경우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환자 중 10명 중 7명(71.2%)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인지율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70세 이상은 87.1%가 고혈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30~39세는 24.8%로 4명 중 1명만, 40~49세는 50.7%로 절반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당뇨병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70세 이상은 77.6%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30대는 43.1%만, 40대는 53.3%만이 당뇨병을 인지하고 있었다. 환자는 아니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전단계를 포함하면 당뇨병은 63%, 고혈압은 57.1%에 달한다"며 "발생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반

이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조사·수사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이란 비상수단을 악용해 정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보직자들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권을 못살게 굴고 대통령을 임기 도중이라도 끌어내림으로써 그들의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정권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속셈을 웬만한 국민은 다 안다. 탄핵이란 수법은 얼마전 이미 한 차례 써먹었고 재미를 톡톡히 보기도 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어떤 꼬투리라도 물고 늘어지면 과거의 '꿈 같은 행운'이 다시 굴러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실형이나 경형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 '왜 이런 입법 독재를 자행하느냐?'고 물으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을 들먹이며 오히려 '뉘가 잘못이냐?'고 반문할 게 뻔하다. 오직 원칙에 따른 운영이고 정의의 실현 방식이라고 우길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 좋은 쏘라고 경찰에 준 것이니 경무대를 지키기 위한 발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통령을 보위할 따름이라는 논리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므로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해도 전혀 문제없다면서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우위하는 논리가 무엇이 다른가. 아울러 지난 총선의 전체 여야 지지율은 약 45% 대 55%로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구 단위의 개별 승부이기 때문에 의석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민심은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는 놀이 기구

오늘의 정치 논평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박준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는 이런 현안을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웃음을 되찾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달간 독선적 국회 운영으로 정쟁을 일삼고, 민생은 내팽개쳤습니다. 그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국회의 모습은 민주당의 똘이가 부른 비극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린 어제도 야당은 계엄을 언급해 민심을 교란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문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특검과 탄핵 레퍼토리를 반복해 온 민주당이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정쟁 2막'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고사 혐의의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야당의 선전 선동과 정치공세가 또다시 붓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것을 우려합니다. 이제는 탄핵과 특검, 정치공세와 선전 선동을 내려놓고, 민생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하는尹 대통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왕'의 진면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오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 데 멈추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입니다. 더욱이 여야 갈등이 아무리 극심할 때도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왔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현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입니다.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본다", 이 말 또한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자각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각종 특검과 청문회 실시를 '비정상 국회'로 규정하는 모양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야말로 국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국민적 의혹 앞에 국회가 눈을 감고 거수기 노릇만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야말로 비정상적 극치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부정하는 행태는, 대통령을 성안에 갇힌 군주로 만들 뿐입니다. 민심과 담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국회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